

##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의 관계 탐색

차정은 김아영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성격검사 결과 해석 시 고려해야 하는 반응자들의 비전형적 반응유형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반응유형들과 성격검사 하위요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비전형적 반응은 사회적 바람직성, 무선반응, 무중경향성, 극단반응이었다. 전국에 소재한 30 개 대학에서 3,051 명을 대상으로 '5 요인 성격검사'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무선반응 척도'를 실시하였고, '무중경향성'과 '극단반응' 지수를 계산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로 구성된 사회적 바람직성의 두 하위척도 점수 중 자기기만적 고양과 관련성을 보인 성격요인은 외향성과 경협에 대한 개방성이었고, 인상관리와 관련성을 보인 요인은 호감성이었으며, 성실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은 두 하위척도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중 경향성은 다른 성격요인들과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호감성 요인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무선반응은 어떤 성격요인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극단반응은 다른 성격요인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었다. 더불어 심리측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무중 경향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역채점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들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 서 론

구성개념간의 관련성 파악 및 개인의 특성 파악을 위해서 실시되는 설문지나 심리검사는 반응자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할 때에만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거나 익명인 경우,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일부 문항에 대한 반응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검사결과에 따른

혜택이 있거나 개인의 신상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특성 및 태도를 의식적 혹은 무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비전형적 반응(aberrant responses)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전형적 반응은 연구 결과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개인의 특성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지나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형적 반응의 문제

차정은, 김아영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차정은,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이화여자대학교, 전화 : 02)

E-mail : jungeunc@hotmail.com

는 검사의 구성개념간의 관련성 파악 및 개인의 특성 파악이라는 목적에 중대한 방해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Cronbach, 1946; Edwards, 1957; Holden & Fekken, 1989; Nunnally, 1978, 1994; Paulhus, 1984). 따라서 다양한 비전형적 반응 유형이 개인의 특성 파악이라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의 하위 요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개인의 성격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뿐 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제작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전형적 반응이란 반응자 적합도 분석(person-fit analysis)에서 부적합 반응자들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Meijer, 1996)이다. Reise와 Flannery(1996)에 따르면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서는 비전형적 반응의 원인을 크게 반응왜곡(response bias), 무선반응(unmotivated test response), 특성 변산(traitedness vari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반응왜곡은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서 문항에 응답할 때 정확한 자기보고를 방해하는 체계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Hui & Triandis, 1985). 이러한 경향성은 반응왜곡의 동기 및 상황에 따라서 반응양식(response style) 혹은 반응세트(response set)로 구분될 수 있다. 반응양식은 시간이나 검사도구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이는 개인의 특성인데 반하여, 반응세트는 일시적인 방해 요인이나 동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보이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Messick, 1991). 본 연구에서는 반응왜곡 중에서 상황적인 요구에 의한 반응왜곡인 반응세트는 제외하고, 정확한 자기보고를 방해하며, 시간이나 검사도구와는 상관없이 안정성을 보이는 반응양식을 비전형적 반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Kline(1993)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응양식을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과 묵종(acquiescence)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무선반응은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서 검사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반응으로 검사의 문항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선적으로 반응(random response)을 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Reise & Flannery, 1996).

셋째, 특성 변산은 개인의 특성 표현에서의 차이가 보편적인 특성 구인(nomothetic trait construct)에 관련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Reise & Flannery, 1996). 개인이 특

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적인 것(특성 수준)과 질적인 것(특성 표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특성 변산은 특성 표현에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응범위나 극단반응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척도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점 척도에서 개인의 특성이 3점 정도라면, 반응범위가 넓고, 극단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와 반응범위가 좁고, 극단반응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응자의 반응패턴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비전형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비전형적 반응의 근원인 사회적 바람직성, 묵종 경향성, 무선반응, 극단반응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5요인 성격검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 지를 예측할 수 있는 관련 연구들을 진술하고자 한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측정하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동의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자신을 묘사하려는 경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Paulhus, 2002).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에 관심을 둔 초기 학자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정확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제작된 척도들이 어떤 하위요인들로 구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Jackson & Messick, 1962; Messick, 1962). 예를 들어 Wiggins(1964)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들은 크게 '알파요인(Alpha)'과 '감마요인(Gamma)'으로 구분하였다. 알파요인은 자기에 가치를 두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이기적인 편파성을 보이는 자기기만적 고양(self-deceptive enhancement)의 특성을 보인다. 감마요인은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에 가치를 두며, 승인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도덕적인 편파성을 보이는 자기기만적 부인(self-deceptive denial)의 특성을 보인다. Paulhus(1984)는 Damarin과 Messick(1965)의 모형(자폐적 편파성과 전파적인 편파성)과 Sackeim 과 Gur(1979)의 모형(자기기만과 타인기만)을 종합하여 자기기만과 인상관리라는 요인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을 재정의 하였다. 자기기만은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인상관리는 타인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주려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이후에 Paulhus(1988)는 자기기만 요인을 자기기만적 고양과 자기기만적 부인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자기기만적 고양은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자기기만적 부인은 부정적인 면을 거부하려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기만적 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인상관리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BIDR-7 :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를 제작할 때에는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 요인만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정의하였다(Paulhus, 2002). 본 연구에서는 Paulus(2002)가 제안한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 요인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바람직성과 성격검사 하위요인들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바람직성과 5요인 성격검사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 중 Ones, Viswesvaran 와 Reiss(1996)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성실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20$  과  $.37$ ). Barrick과 Mount(199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요인인 자기기만적 고양과 5요인 간에는 모두 낮은 정적 상관(외향성 :  $r=.22$ , 호감성 :  $r=.17$ , 성실성 :  $r=.24$ , 정서적 안정성 :  $r=.35$ , 경험에 대한 개방성 :  $r=.17$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요인인 인상관리와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모두 정적 상관(외향성 :  $r=.39$ , 호감성 :  $r=.42$ , 성실성 :  $r=.39$ , 정서적 안정성 :  $r=.44$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cFarland와 Ryan(2000)은 사회적 바람직성 요인이 비인지적인 측정치(성격 검사, 생활사 검사, 정직성 검사)들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집단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하게 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에 따른 비인지적 측정치들 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5요인 성격검사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집단간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사 검사와 정직성 검사에서도 두 집단간 평균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 신경증, 정직성 요인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유발이 관련된 상황이나 아니냐에 따라 사회적 바람직성은 성격검사에 달리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수행된 Robie, Zicka와 Schmit

(200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잘 보이는 동기를 가진 구직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학생 집단에서 5요인 성격검사 중 어떤 요인에서 평균 차이를 보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동기유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에서의 차이로 인해 구직자 집단과 학생 집단의 성실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점수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요인 성격검사가 아닌 Jackson의 Personality Research Form과의 관계를 확인한 Stricker(197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은 성취욕구와는  $.40$ , 공격성과는  $-.54$ , 인내심과는  $.51$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Barrick과 Mount(1996)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요인인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 요인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련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요인인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 요인 모두 성실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적 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목중 경향성은 문항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동의하지 않기 보다는 동의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Cronbach, 1946)으로, 주로 이분문항(‘그렇지 않다’, ‘그렇다’)에서 문항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렇다’라는 반응을 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되어왔다. Bentler, Jackson 과 Messick(1971)은 원래 문항과 반대 의미를 갖는 문항간의 상관을 통해 목중의 개념을 재정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행복하다’는 문항이 있다고 하면,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와 ‘슬프다’는 문항으로 표현될 수 있고, 유사한 의미는 ‘슬프지 않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 간에 상관패턴을 확인함으로써 목중 경향성을 재정의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목중 경향성은 동의목중(agreement acquiescence)과 수용목중(acceptance acquiescence)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동의목중은 각 문항에 무조건 동의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수용목중은 문항에서 묘사된 특성을 자신을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앞서 제시한 각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하는 것을 1점씩 부여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반응, 동의목중, 수용목중은 표 1에서와 같이 각 문항에 대한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1. 문항내용과 목종 경향성의 효과

문 항 쌍	정상반응 상관	동의 목종	수용 목종
행복하다 - 슬프다	-	+	+
행복하다 - 행복하지 않다	-	+	-
행복하다 - 슬프지 않다	+	+	-
슬프다 - 행복하지 않다	+	+	-
슬프다 - 슬프지 않다	-	+	-
행복하지 않다 - 슬프지 않다	-	+	+

출처 : Bentler, P. M., Jackson, D. N., & Messick, S. (1971). Identification of content and style : A two-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acqui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76(3), 190쪽.

정상적인 반응의 경우에는 ‘행복하다-슬프지 않다’의 쌍에서와 ‘행복하지 않다-슬프다’의 쌍에서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고, 나머지 경우들에서는 낮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동의목종의 경우는 모든 쌍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쌍에서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고, 수용목종의 경우는 긍정문으로 물어보는 쌍과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쌍에서만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고, 나머지는 낮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MMPI 원 문항과 반대 의미를 갖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용적인 요인이 아닌 부가적인 요인이 산출되었는데, 이 두 요인이 동의목종과 수용목종이었다(Jackson & Messick, 1965).

그러나 대부분의 목종 관련 연구(Bachman & O'Malley, 1984; Knowles & Nathan, 1997; Morf & Jackson, 1972; Pillotte & Gable, 1990; Stricker, 1974; van Herk, Poortinga, & Verhallen, 2004)에서는 목종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지 않고, 동의목종을 목종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언어 상 부정으로 묻는 경우에 ‘그렇다’는 응답이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등의 문제로 인해 수용목종을 정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목종을 동의목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목종 경향성과 성격 특성들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을 보면 언어적 능력, 지적 능력, 지적 호기심, 교육 정도, 이해, 인지적 단순성, 경직된 마음의 상태, 대안에 대한 참을 수 없음과 등과 같은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종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적 능력 및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고(Messick,

1967), 지적 호기심도 적으며(Morf & Jackson, 1972), 교육수준도 낮고(Narayan & Kronick, 1996; Pillotte & Gable, 1990), 이해의 특성도 낮으며 인지적으로 단순하고 경직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안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 것(Knowles & Nathan, 199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들로 볼 때 목종 경향성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종 경향성은 충동성(Messick, 1967) 과 관련시켜 논의되었는데 충동적일수록 목종 경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확인되었다(Couch & Keniston, 1960; Stricker, 1974). 이들의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더불어 의존성이나 불안, 향문기적 특성 등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들로 볼 때 목종 경향성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목종 경향성은 성격 특성 중에서는 성실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부주의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Stricker, 1974). 따라서 목종 경향성은 성실성과 부정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무선반응은 반응자가 검사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어 문항의 내용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검사의 어떤 하위요인 과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헌검토를 통해서도 무선반응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성격요인과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극단반응은 평정척도에 반응할 때 가장 최고점이나 가장 최하점을 택하는 문항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척도를 사용하는 반응범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즉, 극단반응을 많이 보이는 사람은 반응범위가 넓고, 극단반응을 적게 보이는 사람은 반응범위가 좁은 특징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범위보다는 비교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 극단반응을 선택하여 특성변산을 추정하고자 한다.

극단반응과 어떤 변수들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극단반응은 정서적 흥분 정도(Crandall, 1982)와는 정적 상관이 교육정도(Martin, Gamba & Martin, 1992; Greenleaf, 1992) 와 극단반응은 부정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극단반응은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정적 상관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써 사용되어 온 성격검사를 통해 비전형적 반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5요인 성격검사는 Norman (1963)이 5요인 모형을 공식적으로 학계에 제안하였다 그는 5개 요인을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교양’이라 명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5요인 모형에 대한 지지연구가 계속 이어졌고 (Borgatta, 1964; Smith, 1967), 최근에도 많은 연구들이 5요인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Costa & McCrae, 1988; Digman, 1990; Digman & Inouye, 1986; Goldberg, 1981; McCrae & Costa, 1985, 1987; Noller, Law, & Comrey, 1987).

5 요인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표 2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서 있을 수 있는 비전형적 반응들과 성격검사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여 검사결과를 해석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목적 경향성, 무선반응, 극단반응은 성격검사의 하위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위에서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

표 2. 5 요인 성격검사 구인에 대한 정의

성격요인	정 의
외향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
호감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성실성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신을 위해서 경험을 추구하는 정도

출처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1997), 직업선호도 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147쪽.

표 3.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패턴 예측 결과

비전형적 반응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자기기만적 교양			(+)	(-)	
인상관리			(+)	(-)	
목적경향성			(-)	(+)	(-)
무선반응					
극단반응				(+)	(-)

주 : (+)는 정적상관, (-)는 부적상관을 의미함

검사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의 패턴을 예측해 보면 표 3과 같다.

비전형적 반응 중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중에서 성실성과는 정적상관을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 경향성은 하위요인 중에서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반응은 하위 요인 중에서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정적 상관을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전국에 소재한 30개 대학에서 표집된 3,051명의 자료로 많은 문항에서 응답을 누락한 95명의 자료를 제거하고 2,95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성별 및 학년 별 표본 구성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본 연구 표본 학년별\*성별 구성

학년	성 별		전 체
	남	여	
1학년	325 (11.1)	262 ( 8.9)	587 ( 20.0)
2학년	485 (16.5)	713 (24.3)	1,198 ( 40.9)
3학년	248 ( 8.5)	382 (13.0)	630 ( 21.5)
4학년	199 ( 9.8)	317 (10.8)	516 ( 17.6)
학년 및 성별 미상			25 ( 0.8)
전 체	1,257 (42.9)	1,674 (57.1)	2,956 (100.0)

주 : ( )안의 숫자는 비율을 나타냄

각 학년별로는 1학년이 587(20.0%)명, 2학년이 1,198(40.9%)명, 3학년이 630(21.5%)명, 4학년이 516(17.6%)명으로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성별의 경우에는 남자가 1,257(42.9%)명, 여자가 1,674(57.1%)명으로 여자 표본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집단적으로 실시하거나, 학교별로 각 과목 담당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 및 실시방법이 적혀 있는 안내문 및 검사 실시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부탁하였다. 검사실시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20분 정도였다. 수집된 3,051명의 자료 중에서 5개 성격요인 중에서 3개 요인 이상에서 결측치가 있는 95명의 자료를 제거하여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될 2,956명의 자료를 구성하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측정도구

#####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정보라(2005)가 Paulhus(1998)의 PDS(Paulhus Deception Scale)와 BIDR-7(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을 기초로 제작한 것이었다. 이 척도는 각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된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의 두 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항들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두 척도에서 모두 .69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별로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실시하였으나, 실시과정에서 문항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나 분석과정에서 문항 총점간 상관 및 요인분석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2문항씩을 삭제하여, 각각 8문항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두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자기기만적 고양은 .63이었고, 인상관리는 .68로 나타났다.

##### 목중 경향성

목중 경향성 지수는 이분문항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확

장하여 사용하였다. 이분문항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문항수의 평균(Knowles & Nathan, 1997)를 목중 경향성 지수로 사용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해당되는 4, 5 점에 반응한 문항수를 합산하여 이를 각 척도별 문항수로 나눈 지수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점이다. 본 연구 자료를 토대로 각 척도별로 지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각 척도별 목중 경향성의 내적일치도는 외향성은 .79, 호감성은 .53, 성실성은 .82, 정서적 불안정성은 .83,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71로 호감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여 주었다.

##### 무선반응

본 연구에서는 반응자들의 반응의 일관성 및 무선반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반응 확인 척도를 제작해서 사용하였다. 예비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해 각 요인을 1요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2개 문항씩을 선정하여, 이들 문항과 거의 측정내용은 유사하면서도 표현방식은 약간 변화를 준 문항 10문항을 심리측정 전공 대학원생들과의 토의를 통해 개발하였다. 각 요인별로 가장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인 2문항과 이를 변형시킨 문항과 본 연구에서 각 문항 쌍 간의 상관은 표 5와 같다. 원 문항과 변형된 문항은 한 쌍의 경우에만 .50의 상관을 보이고 그 외는 .65~.83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무선반응 확인 점수의 계산 방법은 원래의 문항 점수에서 변화를 준 문항 점수를 빼고, 절대값을 취한 다음 10쌍의 점수를 합하는 방식으로 공식(1)과 같이 계산되었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점에서 40점이다

$$\text{무선반응 점수} = \sum_{i=1}^{10} |\text{원문항 점수}_i - \text{변형문항점수}_i| \text{ 공식(1)}$$

##### 극단반응지수

극단반응 지수는 Swearingen(1998)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Swearingen의 연구에서는 채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 반응(5점 척도이므로 1점과 5점)을 한 문항수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 5. 무선반응 척도의 원문항 및 변형 문항 간 상관

문항쌍	원문항 - 변형문항	상관계수
1	나는 생기가 넘친다 나는 활력이 넘친다	.83
2	나는 사교성이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나는 사교적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83
3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꺾보는 편이다 나만 못한 사람들을 알보는 편이다	.76
4	나는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편이다 나는 사람들을 적절히 이용한다	.50
5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낸다 나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67
6	나는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갖고 잘 처리한다 나는 맡은 일은 책임지고 끝낸다	.72
7	나는 쉽게 불안해지는 편이다 나는 불안을 쉽게 느낀다	.72
8	쉽게 초조해 하거나 안달하는 편이다 나는 쉽게 초조해 하거나 안달한다	.73
9	나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 나는 폭넓은 경험을 추구한다	.65
10	나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감정이 풍부하다	.74

각 척도별 비교를 위해 채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극단반응(5점 척도이므로 1점과 5점)을 한 문항수를 각 척도별 문항수로 나눈 지수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취한 이유는 문항수가 서로 다른 척도들 간의 극단반응 정도를 서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1점이다. 본 연구 자료를 토대로 각 척도별 지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각 척도별 반응범위의 내적일치도는 외향성은 .88, 호감성은 .85, 성실성은 .91, 정서적 불안정성은 .87,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87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5요인 성격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검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7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에 연구개발을 의뢰하여 1998년 검사개발이 완료된 직업선호도검사 중 일부이다. 이 검사는 5요인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을 측정하는 하위검사들은 다시 5~7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하위척도들은 4~7문항씩을 포함하고 있다. 직업선호도검사 개정 및 타당화 연구(이체희, 2001)에 따르면 5요인 성격검사는 총 163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요인에 해당하는 하위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표 6에서와 같이 .81~.93으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의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 하위 요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전형적 반응유형의 점수 및 지수(사회적 바람직성, 묵종 경향성, 무선반응, 극단반응)를 산출하고, 성격검사의 하위검사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성격검사의 하위 척도별 점수는 각 척도의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문항수로 나눈 평균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성격검사의 하위검사 및 하위척도별 신뢰도

5 요인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하위 척도별 신뢰도	온정성(5)	.60	타인믿음(6)	.60	유능감(7)	.71
	사교성(7)	.77	도덕성(4)	.69	조직화능력(6)	.67
	리더쉽(6)	.70	타인배려(5)	.65	책임감(7)	.79
	적극성(5)	.71	수용성(6)	.57	목표지향(7)	.82
	긍정성(6)	.76	겸손(6)	.44	자기통제력(6)	.65
			휴머니즘(5)	.53	완벽성(6)	.76
전체	(29/6)	.91	(32/17)	.81	(39/11)	.93

  

5 요인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하위 척도별 신뢰도	불안(7)	.84	상상력(5)	.73
	분노(5)	.72	문화(5)	.70
	우울(6)	.74	정서(5)	.59
	자의식(6)	.63	경험추구(6)	.77
	충동성(6)	.68	지적호기심(6)	.74
	스트레스(6)	.67		
전체	(36/6)	.91	(27/7)	.88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척도의 문항수, / 다음의 수는 역채점 문항수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 요인에 따라서 성격검사 하위요인과의 상관패턴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목종 경향성에서 대부분의 성격요인과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역채점 문항의 비율이 호감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하위 검사 문항 중에서 역채점 문항은 모두 포함시키고, 순채점 문항 중에서 문항 총점 상관이 높은 순으로 역채점 문항수와 동일한 문항 수를 선정하여 새로운 성격검사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성격요인 검사 점수와 목종반응지수를 산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목종경향성과 성격요인점수 간의 상관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 및 지수의 기술 통계치는 표 7과 표 8과 같다.

외향성 요인은 5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은 3.06~3.75이고 표준편차는 .52~.67 정도로 나타났다. 호감성 요인은 6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은 2.83~3.62이고 표준편차는 .46~.71 정도였다. 성실성은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은 3.12~3.71이고 표준편차는 .51~.62이었다.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은 6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은 2.32~3.52이고 .58~.81정도로 나타났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은 5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은 3.20~3.78이고 표준편차는 .59~.65이었다.

각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통해 호감성과 정서적 불안정성 검사를 제외하고는 '보통'과 '그렇다'라는 반응 사이에 응답자들의 반응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기만적 고양척도의 평균은 2.78이고 표준편차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관리 척도 평균이 3.02이고 표준편차가 .55로 나타났다.

목종 경향성의 평균은 각 요인별로 외향성은 .51, 호감성은 .35, 성실성은 .42, 정서적 불안정성은 .36,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47로 나타나 호감성 요인에서 목종 경향성이 적은 반면, 외향성 요인에서 목종 경향성을 많이 보



표 7. 5요인 성격검사의 하위척도별 기술 통계치

5요인	척도명	평균	표준편차
외향성	온정성	3.54	.52
	사교성	3.68	.66
	리더쉽	3.06	.67
	적극성	3.51	.61
	긍정성	3.75	.58
전 체		3.51	.50
호감성	타인믿음	3.53	.52
	도덕성	3.42	.71
	타인배려	3.61	.49
	수용성	2.83	.64
	겸손	3.33	.46
	휴머니즘	3.62	.59
전 체		3.40	.35
성실성	유능감	3.33	.51
	조직화능력	3.26	.63
	책임감	3.59	.58
	목표지향	3.71	.57
	자기통제력	3.12	.57
	완벽성	3.42	.62
전 체		3.42	.46
정서적 불안정성	불안	2.97	.81
	분노	2.89	.71
	우울	2.32	.67
	자의식	3.52	.64
	충동성	2.92	.65
	스트레스	2.86	.58
전 체		2.91	.51
개방성	상상력	3.78	.65
	문화	3.75	.65
	정서	3.70	.59
	경험추구	3.65	.64
	지적호기심	3.20	.65
	전 체		3.60

주 :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반응 척도는 40점에서 0점 사이의 범위를 갖는 척도임을 감안해볼 때 평균이 4.00점이므로 상당히 반응자들의 반응이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반응의 평균은 각 요인별로 외향성은 .15, 호감성은 .13, 성실성은 .11, 정서적 불안정성은 .15,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19로 나타나 성실성 요인에서 극단반응이

표 8. 비전형적 반응의 기술통계치

비전형적 반응	요인명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기만적고양	2.78	.48
	인상관리	3.02	.55
무종 경향성	외향성	.51	.18
	호감성	.35	.11
	성실성	.42	.16
	불안정성	.36	.17
	개방성	.47	.15
무선반응		4.00	1.90
극단반응	외향성	.15	.17
	호감성	.13	.14
	성실성	.11	.14
	불안정성	.15	.14
	개방성	.19	.19

주 : 가능한 점수 범위 : 자기기만적 고양, 인상관리(1-5), 무종 경향성(0-1), 무선반응(0-40), 극단반응(0-1)

적은 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에서 극단반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성격검사 하위요인과 비전형적 반응 간 상관분석 결과

요인명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비전형적 반응					
자기기만적고양	.28**	-.10**	.46**	-.47**	.29**
인상관리	-.02	.42**	.25**	-.22**	.07**
무종 경향성	.83**	.10**	.76**	.83**	.73**
무선반응	.05**	.06**	.00	.04*	.00
극단반응	.60**	.43**	.54**	-.02	.69**

주 : \*p<.05, \*\*p<.01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척도인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와 성격검사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외향성 요인은 자기기만적 고양과는 .28로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상관리와는 -.02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성 요인은 자기기만적

고양과는 -.10로 거의 관련성이 없는 반면, 인상관리와는 .42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였다. 성실성 요인은 자기기만적 고양과 .46의 상관을 보였고, 인상관리와는 .25의 상관을 보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모든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불안정성은 자기기만적 고양과는 -.46의 상관을 보였고, 인상관리와는 -.22의 상관을 보여 사회적 바람직성의 모든 요인과 부정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은 자기기만적 고양과는 .29의 상관을 보였는데, 인상관리와는 .07의 상관을 보여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중 경향성은 외향성 요인과 .83, 호감성 요인과 .10, 성실성 요인과 .76,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과 .83,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과는 .73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무선반응은 어떤 성격요인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극단반응은 외향성 요인과 .60, 호감성 요인과 .43, 성실성 요인과 .54,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과 -.02,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과 .69의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목중 경향성과 수정된 성격검사의 하위 요인 간 상관분석  
 성격검사의 요인별(외향성 : 20.68%, 호감성 : 53.13%, 성실성 : 28.20%, 정서적 불안정성 : 16.67%, 경험에 대한 개방성 : 25.93%)로 역채점 문항의 비율이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목중경향성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대로 채점하는 문항과 역채점하는 문항의 수를 균형을

표 10. 균형 목중경향성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외향성 (6+6)	호감성 (15+15)	성실성 (11+11)	불안정성 (6+6)	개방성 (7+7)
목중경향성 (전체문항)	.83**	.10**	.76**	.83**	.73**
목중경향성 (균형문항)	.37**	.18**	.37**	.23**	.38**

주 : \* $p < .05$ , \*\* $p < .01$ , ( ) 안의 숫자는 분석에 포함된 순채점 문항수 + 역채점 문항수

맞추어서 목중경향성과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점수를 새롭게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들 간의 관련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을 보면 목중 경향성은 전체 문항을 사용한 경우와 균형 문항을 사용한 경우에 상관계수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상관관계의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목중 경향성은 다른 요인들과는 관련성을 보였지만 호감성은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 종합논의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비전형적 반응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및 지수를 활용하여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5요인 성격검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결과에 대해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는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예측한 표인 표 3과 실제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작성되었다. 이 표에서 상관계수의 크기가 .20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적 혹은 부정 상관관계를 명시하였다. 표 11에서와 같이 짙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측한 가설과는 동일한 결과를 보인 반면, 옅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측한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 부분이다. 표에서 음영이 없는 부분은 예측된 가설은 없었지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경우이다.

표 11.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불안정성	개방성
자기기만적 고양	(+)		(+)	(-)	(+)
인상관리		(+)	(+)	(-)	
목중경향성	(+)		(+)	(+)	(+)
무선반응					
극단반응	(+)	(+)	(+)		(+)

주 : 짙은 음영부분은 예측과 일치, 옅은 음영부분은 예측과 불일치, 음영이 없는 부분은 상관관계에 대한 예측은 없었지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

1.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척도와 5요인 성격검사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예측과 일치한 결과와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는 모두 성격검사의 하위 요인인 성실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Ones, Viswesvaran와 Reiss(1996)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성실성 ( $r=.20$ )과 정서적 안정성( $r=.37$ )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결과와 McFarland와 Ryan(2000)의 실험적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집단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하게 한 집단에서 성실성, 신경증 요인점수 간에 평균 차이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결과는 자기기만적 고양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인상관리는 호감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기만적 고양은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자기기만적 고양 특성이 높아지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향적이고, 경험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라고 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인상관리는 타인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주려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되는 호감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McFarland & Ryan, 2000; Ones, Viswesvaran, & Reiss, 1996; Robie, Zickar & Schmit, 2001)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단일 구성개념으로 연구된 것이 많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Barrick과 Mount(1996)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요인인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관리가 성격검사 하위요인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를 참고로 해서 개인의 점수를 해석할 때에는 보다 상세한 정보(하위 척도 점수)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기 관련성을 보인 하위요인 점수를 해석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목종 경향성과 5요인 성격검사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예측과 일치한 결과와 예측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와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예측과 일치한 결과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이다. 이는 목종 경향성이 충동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Couch & Keniston, 1960; Messick, 1967; Stricker, 1974)등과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측했던 바와 다른 결과는 목종 경향성과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반응한 사람들의 평균치가 '보통'과 '그렇다'라는 반응 사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목종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각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결과는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이다. 목종 경향성과 외향성이 정적 상관을 보인 이유는 반응의 평균치가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격검사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역채점하는 문항과 그대로 채점하는 문항이 동일한 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반응한 문항 수가 많아지게 되면 목종 경향성 점수와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점수가 모두 증가되기 때문에 목종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과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이 높게 추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채점하는 문항수에 해당되는 순채점 문항을 선정하여 균형화된 척도를 제작하고 난 후, 목종 경향성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목종 경향성과 성격검사 요인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재추정 결과는 전체 문항을 사용한 경우와 균형을 맞춘 문항수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면 상관계수의 크기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관계의 경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목종 경향성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의 관계가 역채점 문항의 비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Greenleaf(1992)의 연구와 Hofstee, Berge와 Hendriks(1998)의 연구에서 목종 경향성을 측정할 때에는 균형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채점 문항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목종경향성이 높을수록 성격검사의

하위요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채점 문항의 비율이 균형이 잡힌 경우에는 목중 경향성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상당히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ikert 유형 척도에서 목중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역채점 문항수의 비율을 고려한 척도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척도 제작에 관한 타 연구 결과들에서는 역채점 문항들이 포함된 경우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한 경우도 많아(예를 들어, 김이영, 김세영, 2003; Benson & Hocevar, 1985; Pillote & Gable, 1990 등),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글의 부정문항이 자기보고식 성격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격검사는 역채점 문항과 순채점 문항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목중 경향성과 성격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과대 추정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 분석에서 인위적인 문항 선정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문항 선정 절차의 도입은 성격검사의 요인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문항들이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후속 연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3. 무선반응과 성격검사 하위 요인은 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선반응을 보인 피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성격검사 구인 타당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극단 반응과 5요인 성격검사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예측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와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극단반응과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연구결과로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서적 불안정성의 측정을 자기 보고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이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 있을 수 있는 반응왜곡인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McFarland & Ryan, 2000; Ones, Viswesvaran & Reiss, 1996), 실제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의 특성이 객관적인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약간 다른 특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극단반응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과 극단반응이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Narayan & Kronick, 1996; Pillote & Gable, 1990)를 기반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극단반응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이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극단반응과 성격검사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극단반응을 많이 하는 피험자들은 비교적 자신의 성격을 과장되게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점수를 해석할 때 뿐 만 아니라 다른 구성개념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기만적 교양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점수를 해석할 때에는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점수는 실제보다 낮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서적 불안정성 점수는 실제보다 높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하위 요인인 인상관리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점수를 해석할 때에는 호감성, 성실성 점수는 실제보다 낮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서적 불안정성 점수는 실제보다 높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중 경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점수를 해석할 때에는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개방성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선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점수는 산출된 점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극단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개방성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측정학적으로 목중 경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역채점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이 균형 잡혀 있어야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무선반응을 보인 피험자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성격검사의 구인타당도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전형적 반응과 성격검사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 중에서 목중경향성과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관계 양상이 가설과 반대로 나온 부분과 극단반응과 정서적 불안정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관계 양상이 가설과 달리 나온 부분은 왜 이러한 양상을 보였는지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아영, 김세영 (2003). 명시적 부정문항과 암묵적 부정문항이 심리척도의 요인구조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 연구*, 16(1), 39-52.
- 이철휘 (2001). 직업선호도 검사 타당화 연구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chman, J. G., & O'Malley, P. M. (1984). Yea-saying, nay-saying, and going to extremes : black-white differences in response styles. *Public Opinion Quarterly*, 48, 491-509.
- Barrick, M. B., & Mount, M. K. (1996). Effects of impression management and self-deception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personality construc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3), 261-272.
- Benson, J., & Hocevar, D. (1985). The impact of item phrasing on validity of attitude scal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47, 55-67.
- Bentler, P. M., Jackson, D. N., & Messick, S. (1971). Identification of content and style : A two-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acqui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76(3), 186-204.
- Borgatta, E. F. (1964).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havioral Science*, 12, 8-17.
- Costa, P. T., & McCrae, R. R. (1988). Personality in adulthood : A six-year longitudinal study of self-reports and spouse ratings on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53-863.
- Couch, A., & Keniston, K. (1960). Yeasayers and nay-sayers : agreeing response set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0(2), 151-174.
- Crandall, J. E. (1982). Social interest, extreme responding style, and implications for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 82-89.
- Cronbach, L. J. (1946). Response sets and test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 475-494.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Digman, J. M., & Inouye, J. (1986).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five robust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6-123.
- Edwards, A. L. (1957). *The social desirability variable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 New York : Dryden.
- Goldberg, J.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141-165). Beverly Hills, CA : Sage.
- Greenleaf, E. A. (1992). Improving Rating Scale Measures by Detecting and Correcting Bias Components in Some Response Sty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 176-188.
- Hofstee, W. K. B., Berge, J. M. F. T., & Hendriks, A. A. J. (1998). How to Score to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5, 897-909.
- Holden, R. R., & Fekken, G. C. (1989). Three common social desirability scales : Friends, acquaintances, or strange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 23, 180-191.
- Hui, C. H., & Trindis, H. C. (1985). The instability of response sets. *Public Opinion Quarterly*, 49, 253-260.
- Jackson, D. N., & Messick, S. (1962). Response styles on the MMPI : comparison of clinical and normal sampl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5, 285-299.
- Jackson, D. N. (1967). Acquiescence response styles : problems of identification and control, In I. A. Berg(Ed.), *Response set in personality assessment*. Chicago : Adline, 71-114.
- Kline, P. (1993). *Personality : The psychometric view*. New York : Routledge.
- Knowles, E. S., & Nathan, K. T. (1997). Acquiescent responding in self-reports : cognitive style or social concern? *Journal of Research of Personality*, 31, 293-301.
- Martin, G., Gamba, R. J., & Martin, B. V. (1992). Extreme response style and acquiescence among hispanic the role of acculturation and educ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4), 498-509.
- McFarland, L. A., & Ryan, A. M. (2000). Variance in faking across noncognitive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5), 812-821.
- McCrae, R. R., & Costa, P. T. (1985). Updating Norman's "adequate taxonomy" :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natural language and questionnai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710-721.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 Meijer, R. R. (1996). Person-fit research : An introduction,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9(1), 3-8.
- Messick, S. (1962). Response style and content measures from personality Inventor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2, 41-56.
- Messick, S. (1967). The psychological of acquiescence : An interpretation of research evidence. In I. A. Berg(Ed.), *Response set in personality assessment* (pp.115-145). Chicago : Aldine.
- Messick, S. (1991). Psychology and methodology of response styles. In R. E. Snow & D. E. Willey (Eds.), *Improving inquiries in social science* (pp. 161-200). Hillsdale, NJ : Erlbaum.
- Morf, M. E., & Jackson, D. N. (1972). An analysis of two response styles : True responding and item endorse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2, 329-353.
- Narayan, S., & Kronick, J. A. (1996). Education moderates some response effects in attitude measure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60, 58-88.
- Noller, P., Law, H., & Comrey, A. (1987). Cattell, Comrey, and Eysenck personality factors : More evidence for the five robust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75-782.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McGraw-Hill.
- Nunnally, J. C. (1994). *Psychometric theory*(3rd.). McGraw-Hill.
- Ones, D. S., Viswesvaran, C., & Reiss, A. D. (1996). Role of social desirability in personality testing for personnel selection : The red herr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660-679.
- Paulhus, D. 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98-609.
- Paulhus, D. L. (1998). Paulhus Deception Scales(PDS) :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 User's Manual, New York; MHS.
- Paulhus, D. L. (2002),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 The revolution of a construct In H. I. Braum, D.

- N. Jackson & D. E. Wiley(Eds.), *The role of constructs i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measurement*(pp.49-69).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Pillotte, W. J., & Gable, R. K. (1990).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item stems on the validity of a computer anxiety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0*, 603-610.
- Reise, S. P., & Flannery, W. P. (1996). Assessing person-fit on measures of typical performance,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9*(1), 9-26.
- Robie, C., Zickar, M. J., & Schmit, M. J. (2001). Measurement equivalence between applicant and incumbent groups : An IRT analysis of personality scales, *Human Performance, 14*(2) , 187-207.
- Sackeim, H. A., & Gur, R. C. (1978). Self-deception, other-deception and consciousness. In G. E. Schwartz & D. Shapiro(Eds.), *Consciousness and self-regulation : Advances in research*(Vol.2; pp. 139-197). New York : Plenum Press.
- Smith, G. M. (1967). Usefulness of peer ratings of personality in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7*, 967-984.
- Stricker, L. J. (1974). Personality research form : Factor structure and response style involv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4), 529-537.
- Swearingen, D. L. (1998). Person fit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measure of response set,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 van Herk, H., Poortinga, Y. H., & Verhallen, T. M. (2004). Response styles in rating scales evidence of method bias in data from six EU count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3), 346-360.
- Wiggins, J. S. (1964). Convergences among stylistic response measures from objective personality tes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4*, 551-562.

##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berrant Responses and Personality Sub-factors

Jung-Eun Cha      Ahyou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responder's aberrant responses during personality test interpretation process and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aberrant responses and personality sub-factors. In this study, the types of aberrant responses was defined as social desirability, random response, acquiescence, and extreme response. The measure was composed of 'Big 5 personality test', 'social desirability scale', and 'random response scale', which was administered to 3,051 subjects in 30 universities. And 'acquiescence index' and 'extreme response index' was compu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following result are found; in 'self-deception enhancement' and 'image management' on social desirability scale, only self-deception enhancement has shown meaningful relationship extroversion and openness about an experience; only image management has shown meaningful relationship agreeableness; both self-deception enhancement and image management have shown meaningful relationship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instability. Acquiescence tendency has shown positively high correlation with other factors except agreeableness. No meaningful relationship emerged between random response and any other factors. Extreme response has shown positively small correlation with other factors except emotional instability. In a measurement viewpoint, the fact that the balanced scale is very important on the study of acquiescence was found.

**Key words :**

원고접수 : 2006년 10월 9일  
심사통과 : 2006년 11월 20일